

사회

광주 치평·쌍촌·용봉동 '치안 불안'

지난해 5대 강력범죄 900건 넘어 하루 2.5건꼴 발생

유형가·원룸 밀집... 절도·폭력·성범죄 順

유형가가 밀집돼 있는 광주시 서구 치평·쌍촌·화정동과 북구 용봉동의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900건을 넘어 하루 2.5건꼴로 절도, 폭력, 강간·추행, 강도 등 강력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범죄 발생 비율은 동구가 0.032%로 가장 높았다. 남구는 0.011%로 가장 낮았으며, 서구 0.017%, 북구 0.015%, 광산구 0.013% 순으로 나타났다.

고, 지구대나 파출소별로 도로 등을 경계로 구역을 나눠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2011 광주 동별 5대 강력범죄 발생 현황(살인 제외·건)

Table with 6 columns: 범죄 유형, 동구, 1, 2, 3, 4, 5. Rows include 전체,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암동 408건, 두암동 340건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최소 하루 1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단지보다 주택지역이 많아 절도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나원침 (8502) 김종두



전과 4범 음주운전 뺑소니

광주남부경찰은 14일 70대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노모(43)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유관 뿔여 2억 기름 흡친 일당 밀미

승유관 뿔여 2억 기름 흡친 일당 밀미. 승유관 뿔여 2억 기름 흡친 일당 밀미. 승유관 뿔여 2억 기름 흡친 일당 밀미.



댄스포츠 삼매경 14일 오후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찾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댄스포츠 삼매경에 빠져있다.

100만원 수표 뇌물 받았다가...

병원 감사 금품 건보심평원 직원 벌금형

법원이 의료보험 급여 현지감사에 나섰다 뇌물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형 독감 의심 유아 병원서 치료중 숨져

유족들, 치료 소홀 병원 고소 A형 독감이 의심되는 유아 숨져. 유족들은 13일 새벽 3시경부터 아이 이상 증세를 보여 의료진에 알렸으나 조치가 늦어져 숨졌다는 경향에 고소했다.

프로야구서도 '경기 조작'

서울연고 주전 투수 기담

국내 최대의 프로스포츠인 프로야구에서도 '경기 도박'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데 서울에 연고를 둔 최소 2개 팀 이상의 주전 투수가 경기조작에 가담했다는 브로커의 진술이 나와 검찰이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5·18 참가 재심서 무죄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강희)는 14일 1980년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 기획위원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옥고를 치른 문승훈(57·광주·전남민주화운동 동지회 공동대표)씨에 대한 재심을 기각했다.

5·18 참가 재심서 무죄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강희)는 14일 1980년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 기획위원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옥고를 치른 문승훈(57·광주·전남민주화운동 동지회 공동대표)씨에 대한 재심을 기각했다.

Large advertisement for '자유투어' (JAY TOUR)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various countries like China, Japan, USA, Europe, and New Zealand. Includ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oter section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예/약/상/담, 북구점, 상무점, 수완점, 동구점, 남구점, 첨단점, 총장점, 하남점, 광천점.